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I 출장 개요

1. 목적

- 토론토 신시청, 몬트리올 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우리 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함
 - 구 시청건물의 활용방법, 시민을 위한 시청사 건축방법 등
-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캐나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 풍경화 같은 도심 거리 및 아름다운 골목길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례
- 기타 성공사례 점검하여 우리 시 도입가능한 시책 발굴
 - 장애인 우대, 관광지 주차 문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문제 해결 등

2. 기간 : 2018. 4. 10.(화) ~ 4. 16.(월) (5박 7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캐나다 : 4개도시(몬트리올, 퀘백, 오타와, 토론토)

4. 여행자 : 10명

5. 여행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주요 일정	연수 내용
제1일	4.10.(화)	인천 캐나다	항공기 버스	○ 인천공항 → 캐나다 토론토공항 ○ 토론토공항 → 몬트리올 - 성요셉 성당 방문 ○ 숙소 휴식	-
제2일	4.11.(수)	퀘백 몬트리올	버스	○ 몬트리올 → 퀘백 이동 - 더프린 테라스(나무데크 산책로)	세계문화유산 도시

				- 뿌띠샹플렝 거리, 건물 벽화 등 문화유산 도심거리 확인 및 체험 ○ 퀘벡 → 몬트리올 이동 - 몬트리올 시청, 다름 광장 등	벤치마킹
제3일	4.12.(목)	오타와 토론토	버스	○ 몬트리올 → 오타와 이동 - 캐나다 연방의사당, 총독관저 등 ○ 오타와 → 토론토 이동	공공 청사 활용 방법 현지 조사
제4일	4.13.(금)	토론토	버스	○ 토론토 : 나이아가라 - 폭포, 수력발전소, 꽃시계, 월풀, 등 현지 방문 및 체험	관광 산업 활성화방안 현지 확인
제5일	4.14.(토)	토론토	버스	○ 토론토 : 세인트 제이콥스 - 메노나이트 농장(메이플시럽), 파머 스마켓 운영사례 현지 체험 ○ 토론토 : 시청, 주의사당 등 방문	운영방법 및 시설 설명 체험활동
제6 ~ 7일	4.15.(일) ~ 4.16.(월)	토론토 인천	버스 비행기	○ 토론토공항 → 인천공항 도착	연수내용 토론 및 종합정리

II 출장 내용

1. 캐나다 이해하기

- 국 명 : 캐나다(수도 : 오타와)
- 위 치 : 미주대륙 북부
- 면 적 : 9,970,610km²(세계 2위, 한반도의 약45배)
- 인 구 : 약 3,500만명 (2016년 7월 기준)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영연방)
- 건 국 일 : 1867년 7월 1일
- 정 치 : 내각책임제
- 행정구역 : 10개주 3개준주
- 종 교 : 로마가톨릭교(42.6%), 개신교(23.3%), 기타 기독교(4.4%),
이슬람교(1.9%) 등
- 언 어 : 공용어((영어(59%), 불어(23%)), 기타(18%))
- 1인당 GDP : 4만 3,611(단위: US\$, 2017년 기준)
- 시 차 : 8시간 ○ 전압 : 110v ○ 통화 : CAD(캐나다달러)



2. 아름다운 예술도시, 몬트리올

○ 몬트리올의 역사와 젊음이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만든다.

-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어권 도시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북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리며 역사적인 석조건물과 고층 빌딩들은 유럽 도시의 풍경을 닮았다.

- 구시가지의 중심에 ‘노트르담대성당’이 있다. 유럽풍 건물로 이곳은 다소 색다른 사연으로 유명한데 몬트리올 출신의 가수 셀린 디온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세계 최대급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와 조명쇼가 펼쳐진다.

- 몬트리올은 1976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당시 건축된 종합운동장이 현재는 스타디움과 바이오돔 등을 갖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을 맞고 있다. 현재는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올림픽 스타디움은 FIFA 월드컵 경기장이나 메이저 리그 야구 경기장, 콘서

트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되지않는 날이 많아서 유지비용이 높아 철거하고자 하여도 철거비용이 비싸 철거를 못해 시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 몬트리올은 예술과 재즈의 도시다.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가 밀집되어 있고, 밤이면 노천바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음악으로 활기가 넘친다. 몬트리올 영화제 외에도 매년 수백만 명이 뒤섞이는 재즈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린다. 야외 콘서트만 시내 곳곳에서 수백 회 공연된다.

- 몬트리올에는 트레이드 마크인 총 길이 30km의 언더 그라운드시티와 그 위 지상 수천여개의 상점이 밀집돼 있다. 쇼핑몰을 지나면 지하철역이 나오고 또 다시 백화점이 이어지는 식이다. 고층 빌딩 아래 지하 네트워크는 겨울 추위가 매서운 몬트리올 삶의 한 단면이다. 10여 개의 지하철역, 수백개의 레스토랑, 수천개의 상점 뿐 아니라 대학, 주택 등을 연결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 전경



몬트리올 경기장

○ 몬트리올 시청 : 역사를 버리지 않는 시청사 건립

- 몬트리올 시청은 제2제정시대 양식(Second Empire style)의 5층 건물로 구시가지인 올드 몬트리올에 있다. 앙리 모리스 페로(Henri-Maurice Perrault)와 알렉산더 쿠퍼 허치슨(Alexander Cowper Hutchison)이 설계했다. 187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878년에 완공하였다.

- 하지만 1922년 화재로 외벽만을 남기고 모두 허물어졌다. 복원을 맡은 건축가 루이 파랑(Louis Parant)은 외벽을 그대로 둔 채 외벽 안에 철근 골조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으로 복원을 했다. 내부에 별개의 건물을 다시 지은 것이다. 참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프랑스 도시 투르(Tours)의 시청을 모델로 지붕의 스타일을 바꾸고 청동으로 장식했다. 오랜 세월 바람과 화학작용으로 인해 초록색을 띤 지붕이 인상적이다.
- 건물의 메인 로비인 1층은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1967년 당시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의 발코니 연설로 유명해졌으며 캐나다는 몬트리올 시청을 사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시청사앞 자끄 까르띠에 광장은 퀘백을 발견하고 몬트리올 땅을 밟았던 프랑스의 탐험가인 자끄 까르띠에의 이름을 땄으며 몬트리올 구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1967년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이 시청 발코니에서 광장에 모인 프랑스인들을 향해 한 퀘백의 자유는 영원하다는 연설로 더 유명하다. 캐나다 수상 피어슨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타와를 향하던 중 갑자기 몬트리올에 들러 연설을 하고 연설 마지막 퀘백 만세! 프렌치 캐네디언 만세! 프랑스 만세! 삼창을 외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분리독립 운동에 기름을 부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다. 광장 주변에는 카페와 꽃집, 레스토랑이 모여있어 현재는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이다.



몬트리올 시청 방문



자끄 까르띠에 광장

3.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유산 도시, 퀘벡

○ 퀘벡에서 역사에 관광이 접목하여 성장한 성공사례를 배우다.

- 퀘벡 주의 수도인 퀘벡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1823년 이래의 성채와 17세기 이래 건축물이 많은,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캐나다 최대의 역사도시이다. 세인트로렌스 강 어귀에 내만이 갑자기 좁아진 지점에 발달한 항구 도시로 유럽 열강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세력 다툼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북미의 지브랄타” 라고 불리며 프랑스계 주민이 많아 언어도 프랑스어가 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 시가는 상·하 2구로 나누며 상구(上區)는 해발고도 100m의 대지(臺地)에 있는데, 북아메리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성벽도시에는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이 많으며, 공원·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다.

- 특히 대지 변두리에서 세인트로렌스강을 바라보는 지점에는 유명한 샤토 프롱트낙성(지금은 호텔로 이용, 캐나다 사적지로 지정)이 솟아 있어 한층 아름다운 풍치를 자아낸다. 하구(下區)는 주로 항구와 상업지구를 이루고 있으나, 교회를 비롯한 건물과 일상생활 풍습 등, 옛 프랑스 양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신문용지의 제조를 비롯하여 금속, 조선, 펄프, 피혁, 식품가공, 섬유 등의 공업이 성하며, 곡물·석유의 거래도 활발하다. 그러나 공업·무역 면에서는 새로 발전한 몬트리올을 따르지 못한다.



퀘벡 방문 단체기념



프레스코 벽화 건물

4. 캐나다의 행정중심, 오타와

○ 오타와에서 시민중심의 행정을 느끼다.

- 캐나다의 수도로 토론토, 몬트리올, 켈거리에 이어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봄에는 튜립의 도시로, 가을에는 단풍의 도시로 자태를 뽐내는 도시이다.

- 오타와 강과 리도 운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첨단산업도시가 되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전자통신 산업 시장이 밀집되어 있다.

- 오타와는 계획도시로 건설되어 도시의 미관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도심은 건축물 고도제한이 있어서 고층건물이 드물고 균형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며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느끼다

- 국회의사당은 캐나다 정치의 1번지로 오타와의 상징인 건물이다.

1860년부터 12년에 걸쳐서 완성되었으나 1916년 뜻하지 않은 화재로 건물이 불타버려 현재의 의사당 건물은 평화의 탑만 제외하고는 원래의 건물과 거의 같게 복원한 것이다. 의사당 뒤뜰에 화재당시 평화의 탑에서 떨어져 깨진 종을 폐기하지않고 캐나다 은행 협회의 지원으로 기념물로 다시 만들었다.

- **평화의 탑(Peace Tower)**은 의사당 본관의 중앙탑으로 높이가 89.6m이다. 평화를 갈망하는 캐나다의 상징이자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탑 안에 각기 크기가 다른 53개의 카리용(Carillon/편종)이 있는데 높이 약105cm, 총무게 66톤의 특이한 타악기이다. 매일 낮 12시30분이면 종이 울리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카리용 콘서트(종소리 음악회)”라 불린다. 탑 자체는 물론이고 카리용과 그 음악은 평화에 헌신하는 캐나다의 강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 의사당 정면에 꺼지지 않는 **불꽃(The Centennial Flame)**이 설치되어 캐나다의 영원함을 상징한다. 1967년 새해의 이브때 캐나다 연방정부의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었다. 분수에서 항상 물이 흘러내리고 천연가스로 피운 불꽃이 365일동안 꺼지지 않으며, 캐나다 주와 준주의 문장이 불꽃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 솟아나는 각 주와 준주를 상징하는 꽃

과 캐나다 연방에 합류하게 된 날짜가 분수의 갖돌에 새겨져 있다. 평화의 탑과 어울려 국회의사당의 상징이다.



국회의사당 정면



꺼지지않는 불꽃

○ 총독관저를 둘러보며 시민에게 친숙한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배우다.

- 총독관저(Rideau Hall), 리도 홀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 시에 있는 캐나다의 군주와 총독의 관저이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시 서섹스 드라이브 1번지에 위치해 있는 0.36km²의 땅에서 본관은 9,500m²의 공간에 약 175개의 방이 있다. 보통 여러나라의 관저는 수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지만 캐나다의 리도 홀은 반대로 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다.

- 1838년 개인 저택으로 건축됐다가 1857년 초대 총독 몽크경의 임시관저로 사용된 이후 1868년 캐나다 정부가 매입해 역대 캐나다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다.

- 리도 홀 대부분의 시설들은 국정을 수행하는 용도로 쓰이며 작은 500m²의 공간만 총독이 필요한 거주의 용도로 쓰인다. 리도 홀에서 공식적으로 환영받는 사람들은 외국의 국가 원수과 대사, 주캐나다 고등판무관, 그리고 캐나다의 대신이다. 리도 홀은 대부분의 국가급 훈장의 수여식 주최, 총리와 그밖의 연방정부의 장관들의 취임식 주관, 선거교서를 보내는 장소며 의례적인 행사와 또는 헌법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장소이다.

- 리도 홀은 관광안내인의 도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매년 2십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활짝 열려있는데 일반인이 부담없이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도 마련되어 있다.

- 리도홀 정원에는 세계 각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마다 기념식수를 했

고 우리나라 대통령 역시 기념식수를 하여 잘 자라고 있다. 노태우(레드 오크), 김영삼(단풍나무), 김대중(구상나무(한국 토종)), 박근혜(호두나무 (품종:비터넛 히코리))를 식수했다.



총독관저 방문



리도홀 정원내 김대중 대통령 식수

5. 캐나다 제1의 도시 경제중심, 토론토

○ 토론토 시청에서 시민이 주인인 순천시 청사 건축방향을 살펴보다.

• 토론토는 5대호의 하나인 온타리오호에 위치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제, 통신, 운수, 산업의 중심지로 캐나다 제 1의 도시이다

< 토론토 신시청 >

•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조형물로 유명하다. 이 건물은 1965년에 핀란드의 유명한 건축가인 빌리오 레벨이 디자인했는데, 전세계 42개국 520여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이다.

• 두개의 높이가 다른 쌍둥이 건축물로 현대적인 디자인의 토론토 대표 건물인데 동쪽타워 99.5m(27층) 서쪽 타워 79.4m (20층)규모이다.

• 신시청 중앙에는 의회 회의장이 둥근 원형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눈동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은 시민들이 눈으로 지켜 보고 있으니 청렴하게 근무 하라는 뜻으로 디자인 된 것이다.

• 건물내부에서는 많은 예술작품을 볼 수 있고 1층은 카페와 로비로 되어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 토론토 구시청 >

• 토론토 구시청은 1999년 9월로 100주년을 맞이한 역사깊은 곳으로 신시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로 캐나다 건축가 에드워드 제임스 녹스가 디자인 하여 1899년

건립되었다.

- 구시청 건물은 설계가 워낙 정교하여 건물 완공까지 12년의 긴시간과 총 2백5십만달러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완성하였다. 구시청 건물이 완성된 1899년에는 토론토 시내 전체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것은 물론 북미에서 가장 큰 시정(市政)건물이었다.

- 당시 예산 초과 건축비로 감사와 소송으로 시의회로부터의 건축비 지불이 어려웠다. 이에 힘없는 건축가는 건물 기둥에 반대 의원들의 얼굴을 조각 하였다.

- 1965년 신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청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관이 화려해 관광명소 중의 하나다

< 네이슨 필립스 광장 >

- 구시청과 신시청 사이에는 넓은 광장이 있다. 토론토 시장이었던 네이슨 필립스의 이름을 딴 네이슨 필립스 광장이다.

- 이 광장은 모두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 여름엔 시장이 서고 무료 공연이 열리는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분수가 독특한데,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로 바뀌며 무료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토론토 신시청 전경



토론토 구시청 전경

○ 세인트 제이콥스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배우다.

- 세인트 제이콥스는 토론토 서쪽,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로 메노나이트(Mennonites) 즉 기독교의 유아세례를 거부한 청교도인이 모여 형성한 마을로 자동차와 전기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그러나 젊은이들은 도시를 동경하여 많이 떠나가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보다 마차를 이용하는 등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때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 비해 삶에 여유가 느껴진다.

- 메이플시럽을 만드는 전과정을 살펴봤는데, 흙이 파인 통나무에 수액을 받아 달군 돌을 통에 넣어 물을 증발시켜 시럽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이 본래 3일 정도 걸린다. 이후 유럽에서 온 초기 정착민들이 사용했던 철로 된 양동이를 사용하여 기간을 하루로 단축시켰다. 메이플 시럽 제조과정은 우리의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과정과 유사하지만 땅이 넓은 캐나다인지라 단풍나무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 세인트 제이콥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파머스 마켓으로 1975년에 세운 재래식 시장이다. 동절기는 목, 토 하절기는 화요일 추가 운영하는데 운영시간은 오후 3시까지이다.



파머스 마켓 전경



세인트 제이콥스 마을 방문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몬트리올 시청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에도 타지않은 외벽을 그대로 두고 내부에 새로 짓는 방식으로 건물자체를 오히려 역사로 활용하였음
- 몬트리올 시청, 토론토 시청 등의 건물 1층 로비는 카페나 예술작품 전시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청 외부도 광장을 조성하여 가족들의 피크닉 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등 모든 공공기관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곳곳에 나타남
- 토론토 신시청은 두 건물이 서로 마주보게 하여 햇빛을 오전, 오후로 번갈아 반사시켜 자연에너지 효율을 높였음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건물 출입구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 냉난방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또 호텔 객실도 중앙에 메인 전등이 없이 테이블등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 약간 어두워도 좋은 시책으로 보였음
- 전기를 110V를 쓰고 있는데 전압이 낮아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가능성이 낮음
- 총독관저도 외국인인 관광객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놀라웠음
- 청사 건물이 1~2년에 완성되지않고 10년이상 걸려 건축하여 완성도를 높였음
- 도시에 현대식, 고딕식 건물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품격있고 아름다워 거리를 걷기만 해도 예술과 역사가 느껴짐

○ 특이사항

① 휴게소나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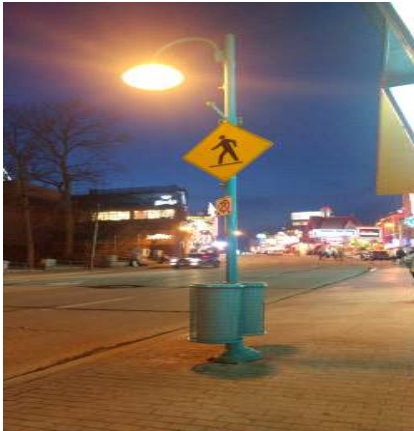


휴게소내 장애인 이용 테이블



시침과 분침이 목발모양인 꽃시계

② 관광지의 인파 및 좁은 도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시설이 독특하다



나이아가라 거리 3가지 기능 가로등



나이아가라 거리 자동주차 발권기

③ 시민이 구간구간 자전거를 쉽게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거리 자전거 무료 대여시스템



거리 자전거 거치대